

국제 기초화학 학술대회 국내 개최

8월22-27일 국제화학상관해석학회 주관 ... 원천기술 통한 신산업 도출

기초과학 관련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동아대학교는 8월22일부터 6일간 해운대 메리어트 호텔과 벅스코에서 국제화학상관해석학회가 주관하는 제 10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제화학상관해석학회(CAIC)는 화학반응에서 반응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화학의 원천기술 발전과 함께 생명공학, 의·약학, 우주공학, 신소재 재료과학에 접목시켜 신산업을 도출하기 위해 1977년 화학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학자들이 창립한 학회이다.

48개국 120여명의 저명학자들이 참가하는 2004년 학회에서는 화학분자구조-활성관계, 분자구조-반응성관계, 분자구조-물리적성질 상관관계, 분광학적 성질, 치환기효과, 용매효과, 약한 분자 상호인력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있다.

준비위원장인 성대동 교수(화학생명과학부)는 “3년 동안 핀란드 헬싱키,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 등과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게 됐다”며 “화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의 전세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20>